



표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 60:1)

만민중앙소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news.manmin.or.kr

등록번호 : 다-1840(1989. 7. 12.)
편집처 및 발행소 : 만민중앙성결교회
발행인 : 이재록
인쇄인 : 김신경
편집인 : 빈금선

서울 구로구 구로동 235-3번지 ☎02-818-7000
e-mail : manminnews@hotmail.com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띤 만민중앙성결교회

제381호(구401호) 2009. 1. 11.(격주간)

2009 축복의 해



장애물이 없는 삶

글 · 이재록 목사 한국일보 연재 '길' 칼럼에서

지난해에는 국내외 경기 침체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역시 낙관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전망을 내놓고 있지요. 이러한 때에 현실의 어려움만을 바라보면 자칫 실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크리스천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평안을 누립니다.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며, 종국적으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크리스천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바로 눈앞에 놓여 있는 어려움이 아니라 믿음의 유무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시편 119:165)

2008년도 사무연회 공로패, 감사패 시상식

「2008년도 사무연회」가 지난해 12월 28일 저녁예배 후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의장으로 본당에서 열렸다. 이날 연회는 2009년도 목사안수 청원과 장로 피택을 위한 후보자 결의, 2008년도 재정 결산 보고와 2009년도 예산안 보고와 심의, 공로패 및 감사패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공로패는 우리 교회 부목사 이희진 목사, 라틴아메리카 총회장 이재호 목사가 수상했으며, 감사패는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 만민교회 담임 김석환 목사, WCDN(세계 기독교사 네트워크) 회장 채윤석 피택장로, 구역 부흥과 성미 봉사회에 힘써온 이송덕 권사가 각각 수상했다.

2008·2009 송구영신예배

「송구영신예배」가 2008년 12월 31일 밤 11시에 치러졌다. 초교파적으로 NSS-6 및 타이콤 5 위성,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국내외 성도가 함께 드린 1부 예배에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축복’(신 28:1-6)이라는 제하의 말씀을 전했다. 2부에는 2009년도 교회 기도제목 ‘축복’(신 28:1-6), ‘뛰어난 제단’(신 28:10), ‘성전’(출 36:2-7, 대상 22:1-5),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창 1:1) 외에 응답받고자 하는 개인 기도제목 세 가지를 기록, 제출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축복기도를 받았다. 3부에는 예능위원회 소속 팀이 2009년도 네 가지 교회 기도 제목에 맞추어 찬양, 무용, 워십,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대와 소망으로 서로를 위해 축복을 빌어 주었다.

2009년도 시무식 부흥과 성결을 다짐

「2009년도 시무식」이 1월 2일 오전 10시, 본당에서 우리 교회 및 지교회 교역자, 교회 직원 등 616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이사야서 60:1-3을 본문으로 “제2의 도약기라 할 수 있는 2009년도는 열매를 거두는 해로 더욱 신속히 주님 닮아 영으로, 온 영으로 이루어질 바라며, 세계를 교구로 이를 비전으로 힘차게 전진할 것”을 당부했다.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대예배 1부 · 오전 10:00	화요찬양예배 [대학·가나안·청년·바울·마리아]	오전 8:00
2부 · 오전 11:30	오전 8:00	
[빛과소금성교회 오후 9:00]	수요찬양예배 [빛소금]	오후 9:00
[요식업선교회 오후 11:00]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오후 4:00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오후 3: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00	아동주일학교 주일예배 1부 · 오전 9:00	
금요철야예배 오후 11:00	2부 · 오전 11:40	
수요예배 오후 7:00	저녁 · 오후 1:30	
새벽예배 새벽 5:00		

교회 약도



- 시내버스: 5536, 5615번 (교회앞 하차)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 (디지털단지거리 하차)
-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2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역(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 (교회앞 하차)
- 교회버스: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문의: 차량팀 ☎ 02-818-7391~5)

만민중앙소식을 받아보시려면

- 이 소식을 받아 보기 원하시는 분은 먼저 전화로 구독신청하신 후 우송료를 지정은행 또는 우체국에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 우 송 료 : 1년분 5,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 구독신청 : 02-851-3845, 070-8240-5609
 - 온라인 번호(예금주: 위성영)
- | | |
|------|-------------------|
| 국민은행 | 362-21-0201-106 |
| 우리은행 | 072-255732-02-201 |
| 농협 | 100072-52-061722 |
| 우체국 | 012419-02-047269 |



송구영신예배를 인도하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

축복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신명기 28:1-6)

‘축복’이란 말은 듣기만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축복과 하나님 자녀가 생각하는 축복은 그 개념이 다릅니다. 이 땅에서 세상 사람이 말하는 축복을 아무리 많이 받았다 해도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 해도 막상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적다면 이 역시 안타까운 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자녀는 이 땅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축복이 아니라 천국에서 주어질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영혼이 잘된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받는 축복이 클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습니다 (요삼 2절). 따라서 이러한 축복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점검해 봄으로써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 날에 주어질 상급과 영광을 더욱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1.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었는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축복을 바라보며 물질과 시간, 정성과 마음 등 믿음으로 심고 쌓은 것은 이 땅에서도 열매 맺습니다. 하지만 열매 맺는 시점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며 똑같이 심었다고 해도 그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씨를 심지 않고 수확을 바랄 수 없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는 것은 마치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요행을 바라는 것입니다. 나쁜 씨를 심고 좋은 수확을 바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추수를 마친 농부는 다음 해 농사를 위해 가장 좋은 종자를 남겨두지요. 또한 적게 심고 많은 수확을 바랄 수 없습니다. 열 마지기의 논에 겨우 한 마지기에만 씨를 심어 놓고 열 마지기 모두 수확을 바란다면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7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고, 고린도후서 9:6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했습니다.

여기서 ‘심는다’는 것은 물질 뿐만 아니라 기도, 찬성, 감사, 기쁨 등 영육간에 심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물질을 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며 찬성도 안

한다면 결코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설령 물질로 많이 심었다 해도 축복이 더디 오는 까닭은 영혼이 잘되어 가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 뜻이며 온전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함 자체가 아닌 거기에 담긴 마음의 향을 받으십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심을 때야 그 행함에 담긴 진한 마음의 향이 올라가 축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남들이 하니까 따라 한 사람은 믿음과 소망이 있어서 심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나지 않으면 이내 포기합니다. 또한 실컷 열심히 심어 놓고 받을 축복을 입술로 다 쏟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평, 불만, 부정적인 고백 등으로 자신이 심은 것을 파헤치고 쌓은 것을 깎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편이 아닌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바르게 심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온전한 것으로 심어야 온전한 축복으로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심을 때에 합당한 것으로 심어야 합니다(레 22:20-22).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도 안 되며,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심는 것도 온전하다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심는데도 축복을 받지 못한다” 한다면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렸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바르게 심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분량대로 30배, 60배, 100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십니다. 물론 많이 심을수록 많이 거두게 하시지요. 많이 심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많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비록 두 렷돈의 작은 금액이지만 그것이 전부인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 시간이 적어도 최대한 시간을 내서 중심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 작은 사명이지만 늘 섬김의 자세로 충성하는 사람도 있지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 소망 가운데 마음의 향을 실어 드린다면 결코 작다 하지 않으십니다.

2.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았는가

세상 사람도 씨를 심으면 열매를 거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지만 만약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에 심으라고 하면 의심하며 꺼려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

입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 심는 것이 믿음이지요 (히 11:1).

저는 하나님을 만나서부터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 가진 돈이 없어도 늘 하나님께 드리기를 즐겨했습니다. 힘쓰고 애써 넘치도록 드렸지요.

교회 개척 뒤에도 주의 종, 예능위원회 등을 키우기 위해,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심었습니다. 물질이 남아서도 아니었고, 당장 주의 종이 많이 필요하고 예능위원회가 급히 필요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열매가 확연히 드러난 것도 아니었지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 그 말씀이 실상으로 드러날 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심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선교를 중단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믿음을 내보였지요. ‘언제 열매가 보일까’, ‘정말 열매가 드러날까’ 이런 육신의 생각은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개척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성전을 위해서도 물질뿐 아니라 섬 없이 기도를 심어왔습니다. 물론 ‘과연 대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하지 않았지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기를 바라는 것도 하나님 공의에 어긋나지만, 육신의 생각으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역대하 20:20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라” 했습니다. 축복받고 응답받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또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3년 반 가뭄 중에 있을 때, 사르밧 과부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가뭄이 심해 언제 양식을 구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에게 남은 양식은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도 같았지요. 이렇게 귀한 양식을 엘리야에게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넘치게

값아 주셨습니다(왕상 17:13-16). 현실과 전혀 맞지 않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아도 선지자의 말씀에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 보장 가운데 축복이 임했지요.

3. 연단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느꼈는가

하나님께서 저와 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데 늘 평안하고 좋은 환경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든 환경을 허락하셨지요. 하지만 이러한 과정 하나하나를 믿음과 인내, 사랑으로 통과할 때마다 더 큰 축복의 길로 인도 하셨습니다.

땅에 뿌려진 씨가 자라 열매를 맺으려면 모진 비바람과 폭풍우를 견디고 해충의 위협도 이겨 내야 합니다. 이처럼 최고의 알곡으로 나오려면 연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연단을 통해 남은 알곡만이 추수하는 농부의 기쁨이며 축복의 열매가 됩니다.

당시에는 조금 벅차더라도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임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참 자녀, 최고의 알곡으로 만들어 주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모든 분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축복을 주기 위해 반드시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굶은 땀방울을 흘리는 훈련의 과정을 거쳐 얻은 금메달의 가치가 큰 것처럼 그러한 과정에서 축복의 소중한 가치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 일꾼으로서 축복, 사명자로서 축복도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주어질 때야 비로소 참된 가치를 느끼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순간은 천국에 이르렀을 때이지요. 이 땅에서 심고 행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넘치게 예비하신 천국을 보면서 하나님 사랑을 느낍니다. 또한 이 땅에서 연단을 통해 변화시키고 하늘나라에서 온전한 축복으로 값아 주시는 하나님 사랑에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영광이 온 땅에 널리 퍼지는 축복의 새해에 하나님 섭리를 깨달음으로써 축복의 주인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학·생·주·일·학·교

“세계를 이끌 믿음의 용사 키워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추어 자라야 바르게 성장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조건이 갖춰질 뿐 아니라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로서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신앙 안에서 청소년기는 매우 중요하다.

만민의 청소년, 이들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계발하며 믿음의 인재로 키우는 우리 교회 학생주일학교를 찾아가 본다.

영성과 실력을 갖춘 인재 양성

“한 겨울 눈 속에도 푸른 기세를 자랑하는 소나무 같은 학생들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학생주일학교 교장이 성숙 전도사는 말한다.

‘소나무 같다’는 것은 요즘처럼 혼탁한 세상 흐름에 동조하지 않고 어려서부터 진리에 깊숙이 뿌리 내리 일찍이 세상을 분별하고 절개 있는 믿음으로 자신을 지키는 사람을 뜻한다. 더불어 실력을 갖추어 장차 하나님 나라에 굽직한 인재로 양성하는 것이 바로 학생주일학교의 교육 목표이다.



우리 교회 학생주일학교는 교장과 교감, 그리고 6명의 지도교사와 11명의 부장, 교사연합회와 학생연합회로

되어 있으며, 학생연합회는 다시 중등부와 고등부로 나뉜다. 그 외에 토요찬양예배 준비팀과 새신자관리부, 행사부, 예배부, 선교부, 찬양부, 봉사부 조직을 갖추고 중1부터 고3까지 6개 선교회 65개 반, 900여 명의 학생들이 함께한다.

말씀을 두고 머리를 맞댄 사제

주일 1부 예배가 끝난 시간, 주교사와 아이들이 ‘창세기’ 교재를 사이에 두고 공과 공부를 한다. 그동안 ‘참 믿음과 영생’, ‘신부단장’, ‘믿음의 분량’, ‘영혼육’ 등 공과 공부는 학생들의 영적 성장을 도왔다. ‘창세기’ 교재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창세기강해’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작년 말 제작된 것으로 학생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

작년에는 교회에서 기도와 공부를 동시에 해결하도록 ‘공부방’을 마련해 학생들에게 영어·수학 지도를 해주었다. 주교사는 신앙뿐 아니라 진로, 이성, 가정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상담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영육간에 바로 서야 함은 물론, 하나님 능력을 받아 가르치기 위해 평소 말씀무장과 기도에 힘쓴다.



자라나는 믿음과 비전

학생주일학교에서 가장 큰 행사는 수련회. 매년 여름에 열리는 하계수련회에서 학생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며 믿음을 키워간다. 프로그램 중 하나인 ‘학생찬양제’를 통해 많은 사역자가 배출된다. 올해 초에는 성령충만으로 새해를 시작하기 위해 동계수련회도 열렸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성전에서 열리는 학생토요찬양예배(인도자 김성재 전도사)이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껏 눈물 흘리며 찬양하는 동안 학생들의 마음은 하나님 은혜로 씻기고 한 주간 열심히 공부할 힘을 얻는다.

이 밖에도 기관 활동을 통해 자신과 다른 상대를 이해하고 화평을 이루는 방법과 리더십을 배운다.

학생주일학교는 더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올해에는 ‘학부형과의 만남’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학생들은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매진하다가도 작은 어려움에 낙심하기도 한다. 하나님 일꾼이 되길 사모한다면 자기 눈에 멋있어 보이는 것에 치우쳐 꿈을 찾는 일도 많다. 때문에 방향성을 잡아 주고 적절한 비전을 제시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교회는 해외선교를 활발히 전개하는 만큼 번역, 통역 등을 담당할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미리부터 어학에도 관심을 갖도록 지도한다.

지도교사, 주교사, 학부모의 ‘헌신’

아이들은 사랑과 관심을 먹고 자라는 꿈나무다. 지도교사와 주교사, 그리고 학부모 삼(三)이 일체(一體) 되어 아이에게 그 사랑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요즘 세대는 학생도 바쁘기 때문에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 자율학습 전 같은 시간의 틈새를 활용해 지도교사가 순발력 있게 심방한다. 한편, 서울 외곽에 있는 학교까지 학생을 만나기 위해 정성스레 도시락을 싸가는 주교사가 있는가 하면, 반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 공원에 데려가거나 때에 맞춰 아이들의 선물을 일일이 준비하는 주교사도 있다.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드려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다.

총동원 주일에는 입시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고3 교사들이 부침개, 떡볶이, 주먹밥

을 만들어 먹이며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한 달에 한 번 토요찬양예배 후엔 학부모의 사랑이 가득 담긴 간식이 배달된다. 학생들은 이 시간이 매우 즐겁다.

부장은 아낌없는 재정 지원과 수련회 등 각종 행사 점검 및 추진위원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

사랑으로 심으면 사랑으로 거둔다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 큰 힘이 됐어요’ 말씀꾸러기 같은 학생들이지만 그들이 보내준 편지와 카드에선 속 깊은 사랑이 묻어난다.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상대의 마음을 느끼고 고마워 한다는 사실이 놀랍다.

공부에 흥미가 없던 아이가 믿음 안에 바로 서고 학업에도 성실한 학생이 되며, 기도하지 않던 아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의 뿌듯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다. 아직 때 묻지 않은 순수함을 간직한 아이들이기에 지도교사와 주교사의 관심과 사랑은 심은 대로 열매를 맺는다.

철이 든 학생들은 신앙생활뿐 아니라 학업에도 열심을 내며 장차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고자 자신의 꿈을 위해 착실히 준비한다. 무한한 가능성의 보고인 아이들에게서 미래의 희망을 발견한다.

세계를 이끌 믿음의 용사를 배출하는 학생주일학교, 2009년 새해에도 이들에게 부어주실 꿈과 비전을 기대하며 ‘파이팅!’을 외쳐본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5335-5424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래2동 1323-12 ☎051)326-1537, 010-5521-207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2018-8410
- 새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1동 1281 지하 ☎053)783-3017, 010-7112-3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1-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09-4 ☎062)513-2455, 011-387-0263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81 ☎062)372-1002, 011-601-10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1001-2 ☎062)266-7001, 011-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9663-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6-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6-278-7712
- 평택만민중앙교회 경기도 평택시 비전 2동 221-7 ☎031)665-1405, 011-358-5973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성동 722-3 ☎041)577-7077, 016-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흥동 564-15 ☎041)667-4721, 018-618-6194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1-701-0244
- 사당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1동 173-11 ☎043)283-5004,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울랑동 956 ☎016-215-0116, 010-4155-588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1100 ☎043)845-0617, 019-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마산시 회원구 회원2동 626-1 ☎055)247-8891~2, 010-8947-5989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3745-2119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리 301-5 ☎055)852-5815, 010-2536-2515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8-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중앙동 95-3 ☎055)289-9522, 011-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1-214-8891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동2동 47-5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 192-3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구미시 오태동 742-4 ☎054)464-4512, 016-539-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1-602-9522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873-6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153 ☎061)452-7443, 011-608-3037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2가 929-1 ☎063)223-9991, 018-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1동 250-3 ☎063)853-0675, 011-671-7191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671-11 ☎033)251-1144, 010-7770-2073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3731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명주동 12-2 ☎033)641-3790, 017-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도 연동 2307-5 ☎064)745-0675, 010-2468-2251
- 영동지성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0-5 ☎02)556-8517~8, 019-234-3719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188-26 ☎02)995-9951, 011-717-1217, 011-719-2073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 508-1 ☎031)485-9143, 017-366-5914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1-287-7369
- 검당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698-12 ☎032)569-3835, 010-7720-7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7-4 ☎031)781-9830, 017-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9-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2290-1856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1동 348-5 ☎02)489-3766, 010-6712-2073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2 ☎032)528-3830, 010-7720-7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동 158-5 ☎031)202-8480, 010-2213-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종리동 465-4 ☎031)635-9103, 016-718-7458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3동 165-1 ☎031)840-2906, 019-251-3149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을 이용한 동시 화상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영의 공간을 체험한 사람들

영의 세계는 드넓은 우주 끝 너머 아득히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집이나 차 안에서 창문을 열면 바깥 풍경을 보고 공기를 느끼듯이 영의 세계는 우리 가까이 있다. 공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누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영의 공간을 접할 수 있는 것이다.

육의 공간에서 불가능한 일이 영의 공간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육의 공간에서도 사람의 지식과 문명이 발달하니 인위적으로 다른 공간을 만들어 활용하는 것을 본다. 예컨대, 온실을 만들어 한 겨울에도 채소가 자라게 하며 꽃을 피우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삶에도 필요에 따라 영의 공간이 입혀지면 육의 공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고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보호된다.

성경 곳곳에는 믿음의 선진들이 영의 공간을 활용해 놀라운 일을 이룬 기록이 나온다. 베드로나 사도 바울과 실라가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풀려나고(행 12:7-

10, 16:25, 26), 다니엘은 사자 굴에 던져졌으나 사자가 그를 해할 수 없었다(단 6:22). 다니엘 세 친구도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온전히 지켜졌으며(단 3:24, 25), 사도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어 가던 중 큰 풍랑을 만났으나 그와 더불어 배에 승선한 276명 모두가 보호됐다(행 27:18-44).

이는 모두 하나님 공의에 합당한 영의 마음, 즉 주님 마음을 닮았기 때문에 영의 공간을 입을 수 있었다.

또한 소돔 성을 멸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구원하셨듯이(창 19:29)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을 통해서도 그 영의 공간을 열어 역사하신다.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에서는 이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 주님 마음을 이룬 영의 사람뿐만 아니라 어찌하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도 그들의 삶 속에서 늘 체험하는 것이다. (편집부)

총돌 사고로 폐차되었으나 몸은 멀쩡해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 시내에서 10km 떨어진 모로롱고 지역에 사는 존 오피에노 형제(나이로비 만민성결교회)는 주일 성수와 십일조를 드리는 믿음 있는 성도다.

지난 12월 22일, 14인승 마타투(미니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뒷좌석에서 잠시 눈을 붙였는데 버스 타이어가 ‘펑’ 하고 터지는 소리에 잠이 깼다.



빠른 속도로 달리던 버스는 앞에 가던 트럭을 치면서 길가 밖으로 다섯 바퀴 굴렀고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함께 그는 의식을 잃었다.

깨어 정신을 차려 보니 버스



는 찌그러져 있었고 유리창은 산산조각이 났으며 버스 안에는 피로 범벅된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

앰블런스가 오고 버스에 있던 13명의 사람을 급히 이송했다. 사람들은 죽어갔고, 심한 상처로 고통을 호소했다.

하지만 존 오피에노 형제는 조금도 다치지 않아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놀라워했다.

서울 만민중앙교회의 정진오, 오은미 집사 부부는 고속도로에서 운전 실수로 중앙 분리대와 가드레일을 박으며 차가 세 바퀴 도는 큰 사고를 냈다.

바로 폐차됐지만 어린 아들과 부부는 어디 하나 굽히거나 멍들지 않고 멀쩡했다. 그들은 사고 나는 순간, 솜털과 같은 공이 몸을 감싸는 느낌을 받아 전혀 부딪힘이 느껴지지 않았고, 천사의 도움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미국 뉴욕 만민인터내셔널교회 심남숙 사모와 아들 심테드 형제는 화이트스톤 다리를 건너던 중, 총돌 사고로 차가 완전히 부서졌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다치지 않았다.

이들 역시 영의 공간을 입은 까닭에 차는 부서졌지만 조금도 다치지 않고 보호될 수 있었다.



5미터 우물 속에 빠진 두 살 남아(男兒) 살아나

지난해 12월 7일, 케냐 부시아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다. 주일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두 살 난 남자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5미터 깊이의 우물 속에 거

꾸로 빠진 것이다. 한 청년이 이 사실을 알고 급히 우물 벽을 타고 내려 아이를 꺼냈으나 10여 분이 흐른 뒤라 몸의 움직임이 없었다. 모두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프리카 총회장 정명호 목사가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받은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주자, 아이는 물을 다 토하고 눈을 떴다.



살아난 아이를 보고 성도들은 “천사가 도왔다”고 환호하며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악한 영에게서 해방된 오빠, 대형 가스 폭발에도 살아난 딸



이경화 집사 (중국 1교구)

하나님을 간절히 찾던 이경화 집사는 2000년, 만민중앙교회를 알게 되었다. 삼일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 신경성 심장병, 간염 등 갖가지 질병이 단번에 치료되었다.

그녀에게는 악한 영에 시달려 죽어가는 오빠가 중국에 있었다. 극도로 몸이 쇠약해져 작년 9월경에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병원 진단을 받았다.

그 소식을 들은 그녀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사진 기도를 받았다. 오빠 또한 인터넷으로 화상 기도를 받았다. 당장 죽어가던 오빠는 살아났고, 몸도 호전되었다.

10월 중순, 중국에 들어간 그녀는 오빠와 함께 매일 예배드리며 회개 기도를 하였고,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받은 손수건으로 기도해 주었다. 몸이 점점 회복되고 지난해 11월 특별한사집회 때, 인터넷으로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화상 기도를 받은 뒤 급속히 좋아졌다.

4년 동안 밖에 한 번도 나가지 못하고 2년 동안 한발도 걷지 못하던 그녀의 오빠는 현재 건강을 찾고 혼자서 교회에 나가 예배는 물론, 날마다 다니엘 철야도 하고 있다.

한편, 지난 해 9월 말에는 두 딸이 세 들어 살던 건물 옆집에서 가스가 폭발하는 큰 사고가 있었다. 사고난 옆집 주인은 사망했다.

두 딸은 5층에 세 들었고, 이 건물의 3,4,6층 집들도 창문이 깨지고 창틀까지 떨어져 나갈 정도로 큰 피해가 있었다. 하지만 두 딸은 사고가 난지도 몰랐고, 평소보다 잠을 일찍 깨 소란한 소리에 밖으로 나갔다. 이들을 본 경찰은 놀라 달려왔다. “아니 이 난리에 왜 여기 있어요? 아무 일 없었나요?”

위험천만한 상황에서도 이들에게 영의 공간이 입혀지니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고, 아무런 피해도 없었다.